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2018년 12월

휴먼러니즘

참가안내

[문학]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문화] 마블의 히어로, 인문학으로 만나다

★ 화려한 CG 뒤 숨겨진 현실을 소환하라



교육공동체 나다 주말강좌
“휴머니즘”에 참가하시는 방법

※ 후원회원 가입은 나다 홈페이지 <http://nada.jinbo.net> “후원하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1. 참가신청

참가신청 연락을 해 주세요

〈새로 참가하는 경우〉

전화 또는 나다 홈페이지 “주말강좌-휴머니즘” 게시판에서 신청 글 작성.

▶ 알려주실 것 : ①참가자이름 ②휴대전화 ③신청강좌 ④회원가입여부 ⑤입금자명

〈앞 과정과 연결해 계속 참가하는 경우〉

이전 과정에 이어 계속 참가하시는 분들께 새 과정 참가 여부를 먼저 여쭙고 신규 참가 접수를 시작합니다.

2. 후원회원 가입 선택

후원회원은 주말강좌(휴머니즘)와 방학특강 강좌후원금이 20% 할인됩니다.

▶ 후원회원 : 월 회비 1만 원 이상을 납부. 홈페이지 상단 “후원하기”에서 양식 작성.
(※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위한 로그인 회원과는 별개입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3. 강좌후원금 납부

[2018년 12월 휴머니즘] 강좌후원금

초등부 문학 20만원(10강), 중등부 문화 20만원(10강)

▶ 회원은 80%만 납부

▶ 납부 계좌 : 국민은행 543037-01-005880 교육공동체나다

4. 그 밖에

★ 참고하실 사항

1. 강의는 주 1회, 2시간입니다.

2. 2018년 12월 30일과 2019년 2월 3일(구정 연휴기간) 총 2주의 휴강기간이 있습니다.

★ 강좌가 열리는 곳

교육공동체 나다(마포구청역)

서울시 마포구 망원로 7길 44(망원2동 479-28) 3층

문학 초등	작은 책장으로 떠나는 여행(10강) ★ 이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줄 반짝이는 말들을 찾아서
참가자	12~13세 초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18년 12월 9일~2019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여기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작은 책장이 있습니다. “아, 또 책이야? 지겨워” 라고요? 특하면 책 좀 읽으라는 지긋지긋한 어른들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사람들에게 책이 지긋지긋한 원수처럼 여겨지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만화영화나 웹툰을 보며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 속의 세상으로 흠하고 빠져들어간 적이 있지 않나요? 재밌는 이야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책장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담긴 책들을 가지런히 꽂아뒀습니다.

길게 늘어져 있는 글자들의 미로 앞에서 막막한 당신을 위해 재밌는 이야기가 그 길을 안내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을 때, 우리 앞에는 어떤 말들이 나타나게 된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고, 함께 이겨내 주기도 할 그런 힘을 가진 말들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반짝이는 말들을 얻기 위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지 않을까요?

.....

1강_ 『엄마가 남긴 27단어』, 샤렐 바이어스 모란빌, 아름다운 사람들

무대 위에서 멋진 옷과 모자를 차려입고, 마법을 부리던 ‘위대한 알리기에리’씨가 바로 코비 알리기에리의 자랑스러운 아빠예요. 사실 엄마는 아빠보다 더 멋지고 비밀스러운 진짜 마법을 부릴 수 있지만 이건 오직 코비만 아는 비밀입니다. 5년 째 여행에서 돌아오지 않는 엄마는 여행을 떠나기 전 마법의 힘을 가진 27개의 단어를 알려줬어요. 하지만 그 단어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엄마가 떠난 뒤 혼자 알아내야만 했

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마법을 부려 코비와 주변 사람들을 지켜줬던 단어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2강_ 『우리 반 인터넷 사이트 고민의 방』, 재클린 윌슨, 시공주니어

스피드 선생님이 어느 날 인터넷 사이트를 하나 만들었다고 해요. 바로 ‘고민의 방’. 고민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누구인지 들키지 않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훌륭한 게시판이랍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담아둔 채로 누구에게 쉽게 말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더더욱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기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기 당신의 정체를 들키지 않을 수 있는 ‘고민의 방’에 그 고민을 털어놓아 보세요. 그럼 누구라도 당신의 고민을 함께 나눠줄 거예요.

3강_ 『치외법권 위니 공화국 회고록』, 리사 그래프, 씨드북

위니는 자신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부모님에게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열 명의 동네 친구들이 위니의 작은 나무집에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위니와 친구들! 아무리 힘이 센 어른이라도 100년 전 사라진 피타지오 공화국의 땅에 있는 위니 공화국에 함부로 침입할 수도 마음대로 아이들을 끌어낼 수도 없습니다. 각자의 부모에 대해 벌이던 이 시위는 어느새 전 세계의 어린이와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져 갑니다. “애들은 부모 말을 들어!”라고 화를 내는 어른들과 “온 세상의 어린이를 위해 절대 지지 말아!”라며 환호하는 어린이들. 세상과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까지 이 싸움은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4강_ 『웨이싸이드 학교 별난 아이들』, 루이스 쎄커, 창비

웨이싸이드 학교는 한 층에 교실이 하나씩 있는 30층짜리 건물이에요. 이 특이한 학교에는 엉뚱한 아이들이 잔뜩 모여 있어요. 이곳에서는 글씨를 거꾸로 읽고, 종일 머리카락 숫자를 세고, 교실에서 졸다 깬 학생이 잘 자는데 왜 깨우냐고 화를 내는 일 정도는 별일도 아니죠. ‘아이들이 어른들보다 훨씬 똑똑해’ 하고 비밀을 말해준 선생님에게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다들 아는 건데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는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교.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를 유쾌하게 무너뜨리는 웨이싸이드 학교의 일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5강_ 『기호 3번 안석뽕』, 진형민, 창비

특 하면 ‘공부 잘하는 학교’, ‘사이 좋은 학교’, ‘깨끗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뻔한 말 들뿐인 학생회장 선거는 참 재미도 없고, 실제로 하는 것도 없습니다. 학교를 위해 학생들의 심부름꾼이 되겠다던 학생회장들은 대체 우리의 심부름꾼인지 선생님들 심 부름꾼인지…. 이 지루한 학생회장 선거판에 혜성처럼 나타난 후보, 기호 3번 안석뽕! 특별히 잘난 거 없는 동네 친구 셋은 머리를 맞대고 생각합니다. ‘정말 학생들이 원 하는 학교, 우리가 원하는 학교는 어떤 학교지?’ 그리고 품나는 선거 벽보가 탄생했 습니다. “일등만 좋아하는 학교, 너나 가지삼! 일등부터 꼴등까지 다 좋아하는 학교, 우리가 만드셈!”

6강_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진형민, 창비

“엄마, 나 만 원만 주면 안 돼?” 용기 내 엄마에게 말해보지만 돌아오는 건 ‘돈이 땅을 파서 나오는 줄 아냐?’, ‘쪼끄만 게 돈 쓸데가 어디 있다고’, ‘용돈 받은 건 어찌 고?’, ‘돈 맡겨놔어?’ 같은 말들뿐. 좋아, 주지 않겠다면 돈을 벌면 되는 거 아니겠습 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돈 벌러 갑니다! 어, 그런데 대체 돈을 벌기 위해선 뭘 해야 하는 걸까요? 동네 집주인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돈만 잘 벌던데, 우리는 전단 지를 이렇게 열심히 돌렸는데 왜 돈을 벌기가 힘들까요?

7강_ 『거짓말 학교』, 전성희, 문학동네어린이

“여러분은 세계를 뒤흔들고, 새 역사를 만들, 그런 위대한 거짓말을 배우기 위해 이 학교에 왔습니다.” 거짓말을 가르치는 학교 ‘매티스 스쿨’. 미래를 이끌어나가기 위한 인재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경쟁률을 통해 입학한 아이들만이 거짓말이라는 위대한 능력을 배우게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학교의 존재를 알지 못하지만, 사실 세상의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거짓말 학교 출신이랍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기업의 회 장? 국회의원? 법조인? 아마 그들 역시 이 학교 출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에이, 거짓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거짓말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걸지 도…?

8강_ 『순재와 키완』, 오하림, 문학동네어린이

소중한 친구의 목숨과 인류의 발전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친구를 살리지 않는다면, 당신이 위대한 연구를 성공시킬 수 있고, 전 인류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조차 없는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발전을 일으킨 당신이 역사에 길이 남는 명예와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 멋진 옵션도 있지만, 이 소중한 친구와 다시는 즐거운 시간을 만들 수 없게 되겠지요. 그 때 누군가가 당신의 귀에 속삭입니다. ‘재 하나만 없으면 더 큰 걸 얻을 수 있는걸?’ 이 세상에는 정말 누군가를 희생하더라도 얻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걸까요?

9강_ 『아빠와 나 그리고 아빠?』, 이기규, 휴먼어린이

세상에는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이 그들의 사랑이 이상하고 잘못된 사랑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정말 같은 성별을 사랑하는 일은 끔찍하고 잘못된 일인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사랑인 걸까요? 주인공 효이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의 애인 연우민이 너무 미웠거든요. 하지만 함께 지내면서는 그가 다정하기도 하고, 알뜰기도 하고, 상처가 있기도 하고, 멋지기도 한 사람이란 걸 알아버렸어요. 게다가 우리 아빠처럼 평범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것, 그저 같은 성별의 사람을 사랑할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10강_ 『꽃섬 고양이』, 김중미, 창비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 네 편의 짧은 이야기에는 다양한 동물과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모두는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작고 약하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언제나 작고 약한 존재들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애를 써야만 합니다.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을 때, 이 세상에서 내가 작고 약한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외롭고 지칠 때, 이야기 속 동물과 사람들은 서로를 위로합니다. 너는 약하고 못났다면 미워하거나 돌을 던지는 대신 서로를 포근히 안아줍니다. 그렇게 작고 약한 우리가 서로를 안아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문화 중등	마블의 히어로, 인문학으로 만나다(10강) ★ 화려한 CG 뒤 숨겨진 현실을 소환하라
참가자	14~16세 중등부 청소년
개강	<일요강좌> 2018년 12월 9일~2019년 2월 24일 오후 1시
오리엔테이션	강좌 첫 참가자에 한해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첫날 수업이 시작하기 30분 전까지 와주세요!

마블코믹스는 DC코믹스와 함께 오랜 기간 미국만화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란 초강대국을 등에 업고 전 세계에 문화적 파급력을 과시하기도 했죠. 한국의 어른들도 중년부터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만화나 게임, 영화 등을 통해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헐크 등을 접하고 자란 기억이 있을 정도니 그 영향력은 그야말로 나라와 세대를 넘나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길게는 100년이 다 된 마블의 구닥다리 히어로들이 현대와 와서 오히려 그 인기를 더해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을 갖춘 초인임에도 평범한 인간처럼 고뇌하는 그들의 모습이 여전히 매력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부쩍 화려해진 CG들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때문일까요. 물론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마블의 히어로들에게는 그것이 만화든 스펙터클한 영화든 언제나 시대를 관통하는 사람들의 고민과 세상의 모습이 투영되어 왔습니다. 때로는 민감한 사회적 이슈가 반영되기도 했고요. 사실 그 어떤 무겁고 어려운 이야기나 고민이라도 만화적 상상력이 결합하면 더 쉽게 공감되고 이해되는 묘한 힘을 가지게 되지 않던가요. 그렇게 마블은 언제나 시대에 맞는 히어로들을 창조했고, 또 기존의 히어로들을 변화시켰으며,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블의 작품들은 단순한 흥밋거리를 넘어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블의 히어로들을 통해 세상을 향한 질문을 끄집어내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인문학이란 세상의 숨겨진 의미를 찾는 작업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히어로들을 만나고 나면, 마블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재미로 다가오게 될 거예요.

.....

1강_ 가장 이상한 슈퍼히어로들 : 엑스맨, 돌연변이의 정체성

엑스맨의 세계에서 어떤 인간들은 돌연변이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이용하려 하며 심지어는 없애려고도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들과 공존하기 위해 노력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의 능력을 경계하며 지배하거나 없애버리려고 하실 건가요.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돌연변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돌연변이를 혐오하는 인간과 공존할 방법을 찾으실 건가요, 아니면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하실 건가요.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 번 반복하며 살아왔다는 사실어요.

2강_ 철갑의 페르소나 : 누가 진짜 아이언맨인가

아이언맨은 누가 봐도 슈퍼 히어로지만 그 안의 토니 스타크는 한낱 나약한 (비록 돈이 많지만) 인간에 불과합니다. 즉, 아이언맨은 슈트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자비스 같은 첨단 기술로만 존재할 수 있는 히어로인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원격 조종할 수 있는 아이언맨까지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에 토니 스타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속에는 기계장치만 가득할 뿐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이언맨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혹시 진짜 아이언맨은 토니 스타크가 아니라 그가 입는 슈트 혹은 자비스가 아닐까요?

3강_ 때로는 헐크가 되고 싶어 : 헐크, 분노의 심리학

“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 나는 내가 무엇이 되는지도 모른다. 내가 알고 있는 단 한 가지는 내가 화가 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란 사실이다.”

이것은 히어로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어떤 초록색 괴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굳이 감마선에 노출되지 않아도 때로는 헐크가 되는 혹은 되고 싶은 누군가 (혹은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괴물로 변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록색 괴물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4강_ 타노스의 선택 : 절반의 생명을 희생시킨 정의

타노스가 스톤을 모으는 이유는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단순히 잔인한 악당이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우주가 균형을 찾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50%의 생명을 위해 50%의 생명을 희생시키려는 타노스의 계획. 그의 계획은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어차피 어벤저스가 지켜줄 거니까 그런 고민은 필요 없다고요? 에이~ 하지만 어벤저스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5강_ 와칸다 포에버 : 흑인들만의 히어로 무비, 블랙 팬서의 의미

2018년 영화로 재탄생한 블랙 팬서는 원래 1960년대 탄생한 최초의 흑인 슈퍼히어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문제를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마블을 인수해 블랙 팬서를 재탄생시킨 디즈니가 과거 자신들이 만든 애니메이션에서 여러 번 인종차별적인 묘사를 반복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블랙 팬서가 디즈니에 의해 재탄생한 것은 세상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디즈니가 과거와 달리 변화를 바라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공공이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과연 블랙 팬서는 아직도 미국 사회에 짙게 드리워진 인종차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6강_ 캡틴 아메리카의 변신 : 애국의 영웅에서 자유의 영웅으로

캡틴 아메리카는 그 이름처럼 미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히어로보다도 현실 세계 미국의 모습에 따라 그 성격을 변화시켜 온 캐릭터이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캡틴 아메리카의 모습에서 미국이란 초강대국의 역사와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2018년 캡틴 아메리카에 투영된 미국의 현재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그 모습은 긍정적인든 부정적인든 미국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7강_ 울트론, 인간이 만들어 낸 인간의 적 : 욕망은 어떻게 과학이 되는가

울트론은 만화에서는 앤트맨이 영화에서는 아이언맨이 만들어낸 로봇입니다. 그리

고 원래 의도와는 달리 창조자가 가진 욕망 때문에 결국 빌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제 현실에서도 인간의 욕망이 과학이라는 힘을 통해 사람들을 위협하는 괴물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인간의 어떤 욕망이 괴물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그 욕망의 정체를 알아야만 우리는 제2의, 제3의 울트론을 막을 수 있습니다.

8강_ 신은 어떻게 영웅이 되었나 : 토르와 라그나로크, 그리고 북유럽신화

사람들에게 북유럽 신화는 꽤 생소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생소한 이야기는 토르라는 히어로를 통해 어느새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떤 황당한 이야기든 신화는 역사와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북유럽 신화에서는 무엇을 읽어낼 수 있을까요? 딱딱한 역사책 말고 우리에게 친숙한 마블의 히어로를 통해 만나볼까요.

9강_ 히어로 vs 히어로 : 초인등록법을 둘러싼 끝장토론

영화 <캡틴 아메리카 : 시빌 워>의 원작인 마블코믹스 <시빌 워>는 초인들이 대중에게 신분을 공개하고 정부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초인등록법을 둘러싼 히어로들의 갈등을 다룹니다. 그리고 영화에서도 소코비아 협정이란 이름으로 비슷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죠. 결국 찬반의 갈등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끝났지만 이제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단! 대답은 신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정이 우리가 사는 현실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니까요.

10강_ My Own Hero : 나에겐 어떤 히어로가 필요한가

만약 여러분이 얼마 전 타계한 마블의 아버지 스탠 리라면 어떤 히어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혹은 어떤 히어로를 창조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까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는 영웅은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불안과 콤플렉스가 만들어낸 환상의 존재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말대로 슈퍼히어로가 한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의 머릿속을 반영하고 있다면 어떤 히어로가 사랑받을 수 있을지 조금은 방향이 잡히지 않을까요?■

■교육공동체 나다 2018년 12월 휴머니즘 소개 마침■